

광주 경기 회복세 뚜렷…전남은 부진

2분기 생산·소비 등 지표 개선

소매판매 늘고 수입·수출 호조세

전남은 대부분 경가지표 악화

생산·수출·수입 모두 감소세

울 2분기 광주와 전남 경기 회복 양상이 엇갈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생산 측면 관련 지표들이 모두 상승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대폭 완회되는 등 큰 회복세를 보인 반면 전남은 대부분의 경기 지표가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2분기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울 2분기 광주시는 주요 지역경제 지표 6가지 중 고용률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년 동분기보다 개선됐다.

우선 생산 측면에서 광주시 광공업 생산지수는 133.5로 전년 동분기보다 11.3% 증가했다. 이는 충북(14.1%), 경기(12.3%)에 이어 전국 17개 사·도 가운데 세 번째로 큰 증가폭이다. 광주시 광

공업 생산 증가는 전기장비(51.5%), 담배(72.5%), 자동차(10.0%) 등이 견인했다.

서비스업 지수는 0.2% 증가했는데, 예술·스포츠·여가(-17.4%)와 전문·과학·기술(-7.2%) 등이 감소했지만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8.2%), 교육(3.3%), 보건·사회복지(2.5%) 등이 상승한 결과다.

광주는 소비 측면에서도 소매 판매액이 2.1% 증가했다. 울 2분기에는 새로운 정부 출범 및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전국적으로 회복세에 접어드는 추세였지만 여전히 전국 소매 판매액지수가 0.2% 감소했던 것과 대비된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도 1.7%로 제주(1.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이는 전국 평균(2.1%)보다도 0.4%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또 수입액은 27.7% 증가한 21억 1000만 달러, 수출액도 10.4% 늘어난 46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과 수출 모두 프로세스와 컨트롤러 품목이 30%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전남은 대부분 경기 지표가 악화됐다. 광공업 생산은 지역 주력 산업인 화학제품(-

3.2%), 전기장비(-51.4%) 등의 감소로 전년 동분기에 견줘 1.7% 하락했고, 서비스업 생산도 0.6% 줄었다.

소비 측면에서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반적인 소비 심리가 개선되면서 0.4% 증가한 95.5를 기록했지만, 상승폭은 전국 중위권 수준에 그쳤다. 슈퍼마켓, 잡화점, 편의점 등의 판매액이 증가했지만, 전문소매점(-10.3%), 대형마트(-7.4%)가 하락했기 때문이다. 전남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전국 평균과 같았다.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를 면치 못했다. 울 2분기 전남 수입액은 92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동분기 대비 13.4% 감소했다. 알루미늄(140.6%), 비철 금속 설(326.8%) 등이 증가했지만, 원유(-15.4%), 석탄(-31.1%) 등이 감소했다.

수출액도 13.7% 줄어든 100억 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승용차(45686.9%), 비철금속(188.5%) 등의 증가폭이 컸지만, 기타 인조플라스틱 및 동 제품(-33.5%), 기타 유기 및 무기화합물(-22.3%) 등이 감소한 결과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신세계 로우로우 캐리어

매장 오픈 기념 20% 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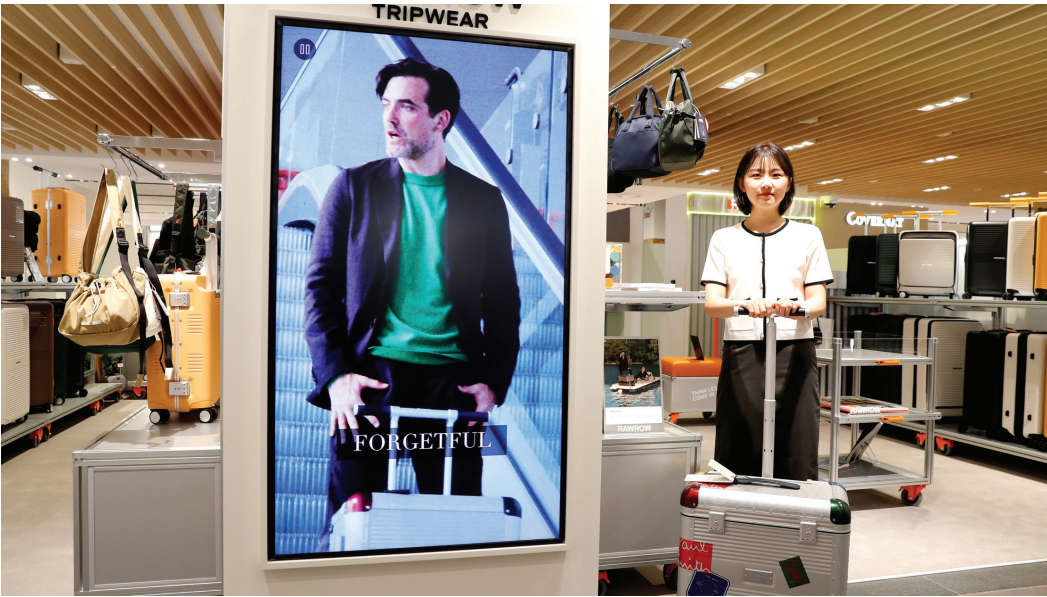
17일까지 사은품 프로모션

광주신세계는 “광주·전남지역 최초로 트립웨어 브랜드 ‘로우로우(RAWROW)’를 선보인다”고 12일 밝혔다.

로우로우는 협업 마케팅을 통해 다양한 여행용 상품을 판매하는 브랜드로, ‘리복’, ‘현대자동차’, ‘곰표밀가루’ 등과 협업한 바 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영국의 컨템포러리 브랜드 ‘폴 스미스’와 협업해 한정판 여행용 캐리어를 출시하기도 했다. 해당 제품은 폴 스미스가 한국 브랜드와 함께 선보이는 첫 제품이다.

협업 제품은 알루미늄 캐리어를 폴 스미스의 감성으로 디자인했으며, 그린·네이비·레드 등 색상을 캐리어 모서리와 손잡이에 적용했다. 내부 안감에는 스트라이프 패턴을 적용해 브랜드의 특징을 표현했다.



광주신세계 로우로우 매장에서 직원이 폴 스미스 협업 한정판 캐리어를 선보이고 있다.

로우로우는 광주신세계 매장 오픈을 기념해 오는 17일까지 할인 및 사은품 증정 프로모션도 펼친다. 행사 기간 중 알루미늄 캐리어는 10만 원, 일반 캐리어는 최대 20% 할인한다. 또 가방

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리유저블백을 증정한다.

증정품은 선착순으로 제공되며 조기 소진될 수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석유화학 회사채 ‘돈맥경화’ 우려…여천NCC 파장 주시

대주주 갈등 노출 투자심리 악화

하향조정 신용등급 평가도 ‘암운’

부도 위기에 처했던 여천NCC<광주일보 8월 11일자 1면>가 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등으로 간신히 큰 고비는 넘겼지만, 회사채 시장에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현재 여천NCC에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곳은 국내 3대 신용평가사(나이스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한국신용평가) 중 2곳으로, 한기평과 한신평으로부터 모두 A-에 등급전망 ‘부정적’을 받고 있다.

등급전망 ‘부정적’은 당장 신용등급 자체를 강등하지는 않지만 향후 재무 상태를 관찰하면서 하향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여천NCC는 현 등급에서 한 단계만 내려가도 A등급 지위를 잃게

된다.

이 같은 신용등급 강등 뇌관은 국내 석유화학 기업 전반에 깔려있다.

이미 지난 6월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이 AA에서 AA-로 하향 조정되며 롯데지주를 포함해 롯데물산, 롯데캐피탈 등 계열사의 신용도가 연쇄적으로 강등됐다.

또 SKC(A+), 에이치디현대케미칼(A), 에스케이어드벤스드(BBB+), 효성화학(BBB) 등 석유화학 기업 상당수가 등급 전망 ‘부정적’을 부여받았다.

신평사들은 업황 부진과 중국의 저가 제품 공세로 경쟁력을 잃은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수익성 저하와 재무 부담 확대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등급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석유화학 업계의 연이은 잡음과 리스크 부각에 투자심리는 이미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었다.

특히 석유화학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그나마 ‘계열사 지원 가능성’을 무기로 회사채를 발행해왔으나 이번 여천NCC 사태를 계기로 이마저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여천NCC가 발행한 기업어음(CP) 등 모든 종류의 채권 잔액은 총 4950억원으로 이중 1100억원은 3개월 안에 만기가 도래한다. 공동 대주주인 한화와 DL의 지원 결정으로 급한 불은 꺼졌지만 향후 회사채 상환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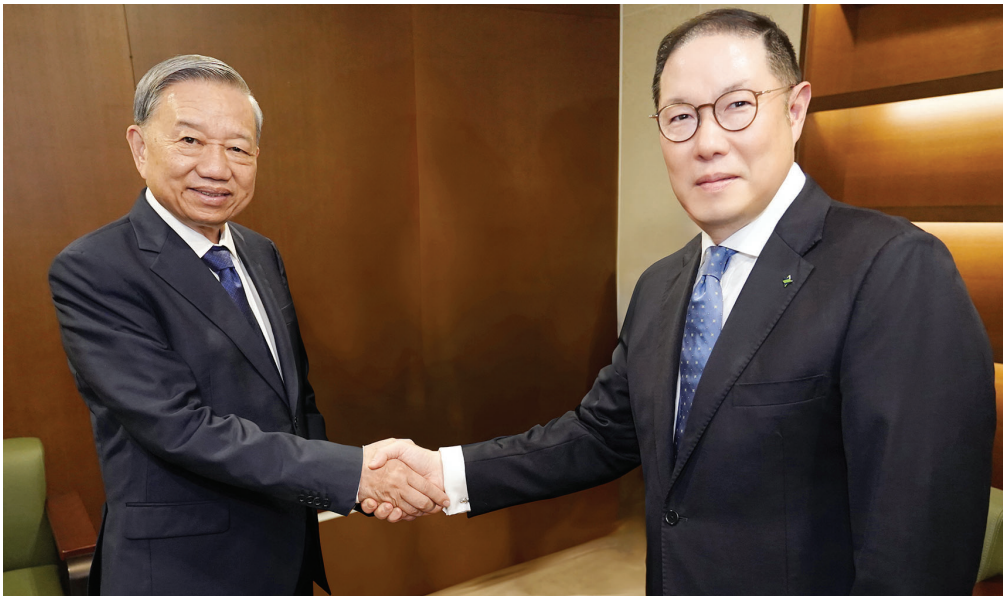
일각에서는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우려하기도 한다.

여천NCC의 회사채는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대상으로는 신용등급이 낮은 편이어서 리테일에서 소화돼 개인투자자들이 매입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연합뉴스



롯데백화점 광주점 ‘홍삼·흑삼 대축제’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직원들이 다양한 홍삼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14일까지 ‘홍삼 및 흑삼 대축제’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한민국 식품 명인 44호 ‘송화수’ 명인의 홍삼 및 흑삼정, 절편, 홍삼차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또 구워먹는 홍삼 치즈, 양갱, 인삼쉐이크 등 관련 제품들도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조현상(오른쪽) HS효성 부회장이 지난 11일 연세대학교 명예박사 수여식에서 또 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HS효성 제공>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한-베 가교 역할

또 림 서기장 연세대 명예박사 추천 성사

연이은 민간외교 역량 주목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민간외교 역량이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초청으로 새 정부 출범 후 첫 국빈 방문한 또 림(Tô Lâm) 베트남 서기장의 연세대학교 명예박사 학위를 추천하는 등 한국-베트남 간 ‘민간 외교관’ 역할을 모범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이다.

12일 HS효성과 연세대학교 등에 따르면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또 림 베트남 공산당 중앙집행위원회 서기장은 지난 11일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연세대학교에서 명예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날 학위 수여는 연세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추천서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부회장은 또 림 서기장이 베트남 경제 개방과 외국인 투자유치에 기여한 리더십 등을 높이 평가하고, 연세대에 명예박사 학위 수여를 추천했다. 조 부회장은 추천서를 통해 “또 림 서기장께서 보여주신 일관된 정치적 안정성과 개혁, 개방 정책은 베트남이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허브로 도약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림 서기장의 명예박사 학위 수여는 단순한

외교적 의미를 넘어 조 부회장이 그동안 축적해 온 실질적 경제 외교 활동과 민간 외교의 모범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조 부회장은 실제 한-베트남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의장 등으로 활동하며 오랜 기간 한국과 베트남 간 경제 협력을 위해 힘써왔다.

그는 특히 한국-베트남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난해 7월 초 방한한 팜 민 쯔 총리를 만나 사업 협력을 건의하고, 올해 7월에는 ABAC 의장으로서 르엉 끄엥 베트남 국가 주석을 만나 APEC 경주에 참석을 요청하는 등 양국의 경제 교류 확대를 위한 ‘민간 외교관’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밖에 HS효성그룹은 20년 전부터 베트남 호찌민, 동나이, 팜낭 등지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구축하며 베트남 내 최대 한국 투자 기업 중 하나로 성장했다. 조 부회장은 특히 투자 확대 과정에서 베트남 정부와의 신뢰 구축과 긴밀한 소통에 앞장서고 양국 간 경제 동반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조 부회장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협력이 더 강화되고 교육·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경총, 중소기업 30곳 안전전문가 파견

산업재해 예방 기반 마련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장의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해 안전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산재 예방 활동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경총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 주관하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참여해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단 등 30개 기업의 안전 관리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안전관리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전문가 3명을 파견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주경총은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밀집 지역 내

고위험 업종 대상 집중 관리,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굴·개선,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 교육·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로 2회째 사업에 참여 중인 광주경총은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현장 밀착형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강화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사업을 통해 광주지역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수준을 끌어올리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민간·정부 간 협력 모델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지역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과 실행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국내 기업 CEO 평균 연령 50대로 낮아져

여성 12명으로 2%대 머물러

국내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평균 연령이 처음으로 60세 이하로 내려갔다.

12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매출 기준 500대 기업(실제 조사 369개 기업)을 분석한 결과, 이들 기업 CEO의 평균 연령은 2023년 61.1세, 2024년 60.3세에 이어 올해 59.8세로 하락세를 보였다.

한솔제지는 한철규(63) 전 대표에서 한경록(46) 대표로 세대교체가 이뤄졌고, 메리츠화재도 김용범(62) 전 대표에 이어 작년부터 김종현(48) 대표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

GS리테일은 최근 3년간 홍순기·허연수·김호성(평균 64.7세) 전 대표에서 홍순기·허연수(65.0세) 전 대표를 거쳐 올해 허서홍(48) 대표로 바뀌었다.

전문 경영인 중 최연소는 이재상(43) 하이브 대표다. 창업자를 포함한 오너 경영인 중에서는 구용모(36) LT 대표이사 전무와 권혁민(39) 도이치모터스 대표가 30대로 가장 젊다.

전문 경영인 중 최고령은 이수광(81) DB그룹

회장이다.

오너 경영인 중에선 손경식 CJ 회장과 강병중 넥센 회장이 86세로 최고령이며, 이명근(81) 성우하이텍 회장, 김동녕(80) 한세에스24홀딩스 회장도 80대 고령에 속한다.

자사 출신 CEO는 2023년 80.0%, 2024년 80.3%, 올해 81.8%로 증가세였다. 업종별로는 은행(13명)과 상사(8명) CEO가 100% 자사 출신이었다.

조사 대상인 CEO 중 여성은 3년 연속 12명으로 전체의 2%대에 머물렀다. 올해 새로 취임한 인물은 한 명도 없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89.91 (-16.86)
↓ 코스닥	807.19 (-4.66)
↑ 금리 (국고채 3년)	2.431 (+0.011)
↑ 환율 (US D) <오후 4시 57분 기준>	1388.90 (+0.011)